

# 2022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14:00~14:4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순 서 (사회 /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0	• 인사 •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 배경 및 과정	사회자
14:10~14:20	• 5대 뉴스 발표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장
14:20~15:25	• 기자회견문 낭독	이규희, 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오다빈, 노동인권연대 사무처장
14:25~14:40	• 질의응답 후 마무리 (다함께 사진)	
	★ 피켓 들기	

### I.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 배경 및 과정

#### 1. 배경

-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수많은 희생을 딛고 ‘인권’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전 세계에 선포하여 올해 7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월, 부산인권정책포럼에서는 <2022 부산의 인권 5대 과제>를 제안하였고, 6월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후보를 비롯한 시장 후보들께 부산시의 주요 인권정책제안서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 이상 코로나19로 의료와 돌봄의 영역뿐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산시민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으며 2022년 부산의 주요한 인권이슈들을 짚어보고 2023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 2. 과정

① 2022.09.21. 부산인권정책포럼 19차 운영위원회에서 ‘2022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과 기자회견
- 부산의 주요 인권뉴스를 함께 이야기 할 3인을 초대,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진행 및 준비팀 결정

② 10월 25일 준비팀 1차 회의

-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 절차 및 기자회견 논의 (일시 및 장소)
- <부산인권정책포럼> 및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참여 48개 단체에 5대 인권뉴스 제안 요청 각 단체에서 다루었던 중요 인권 이슈 3가지 + 지역의 중요 인권이슈 2가지 (※별첨1 : 제안단체)
- 기간 : 11월 1~13일 (2주간)

③ 11월 14일 준비팀 2차 회의 및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위원회 개최

- 취합 총 26개 뉴스 중 14개 뉴스 선정
- 선정 기준
  - ① 전국 차원의 인권뉴스와 부산의 인권뉴스를 구분함
  - ② 다수가 선택한 뉴스
  - ③ 2022 인권현장의 주요 현안
  - ④ 제도적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
- 11.16~22 인권활동가 100명에게 선정한 14개 뉴스 중 5대 뉴스 선정의견을 묻기로 함 (온라인 투표 진행)

④ 11월 23일 5대 인권뉴스 선정 (부산지역 인권활동가 100명 투표 참여)

(※별첨2 : 5대 뉴스 선정 결과)

## II.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 <뉴스 및 선정 이유>

	뉴스	선정 이유
1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폭력 인정 결정 (응답 74명)	8월 24일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91명에 대해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 1986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검찰 수사 시작,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1987년 진상조사단을 꾸려 처음으로 조사를 한 뒤 35년 만의 결정임.

2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37년 만의 복직 (응답 53명)	부산 최초의 조선소의 마지막 해고노동자의 37년 만의 복직. 민주노조운동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에 맞선 고공농성 등 부산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김진숙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2009년과 2020년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을 권고 하였으나 사측에서 수용하지 않았고,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복직투쟁 등 그의 복직은 모든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함.
3	‘부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 (응답 41명)	‘보호’ 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학교는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와 실천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추진된 학교 내 인권규범 제정 좌절
4	부산시, ‘인권’ 명칭 실종된 부서 개편 (응답 38명)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루어진 행정체계개편에서 민생정책관(국) 산하 ‘인권노동정책담당관(과)’가 행정자치국 산하 ‘민생노동정책과’로 개편되면서, 인권부서명칭의 변경은 행정에서 인권의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인권행정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 경계해야 함
5	부산지역 인권단체 및 활동가 지원단체,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출범 (응답 36명)	‘사람이 남지 않는 운동은 미래가 없다’ 2022.11 발표된 <부산지역 인권단체 및 활동가 현황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더 많은 인권현안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인권현장의 열악한 조건과 활동가들의 소진에 공감하여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인권생태계를 바꾸고자 출범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에 대한 지역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의 기대와 바람이 큼.

※ 별첨1 : 제안단체

5대 뉴스 제안 기관 및 단체 (가나다 순 / 총 48개)

- 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사)노동인권연대, 녹산이주민의집, 대안문화연대, 동아대퀴어동아리 동그라미, (사)문화복지공감,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경대 성소수자동아리 용사길드, 부경울 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부산뇌병변장애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 부산노동권익센터, 사)부산노숙인시설협회,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 딘다,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부산여성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포럼,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사회복지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이주민과함께,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이주민문화센터, 이주와인권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인권활동가 100명에게 묻는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다가오는 12월 10일, 74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을 위한 14개의 뉴스 후보 목록을 발송하고 참여단체 활동가들에게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지역 인권단체 활동가 100명이 응답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응답 기간 : 2022.11.16.~2022.11.23.

▶응답자 : 100명

###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 후보 목록

1.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국가폭력 인정 결정 (응답 74개)
2.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37년 만의 복직 (응답 53개)
3.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 (응답 41개)
4. 부산시, ‘인권’ 명칭이 실종된 부서 개편 (응답 38개)
5. 인권단체 및 활동가 지원단체,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출범 (응답 36개)
6. 부산시 인권위원회, ‘이동약자의 이동·보행권 보장 및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응답 34개)
7. 부산출입국보호소 구금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응답 31개)
8. 부산시 공영장례조례 제정 후 공영장례 시행 (응답 27개)
9. 부산시 인권위원회, ‘홈리스 인권보장 개선 방안’ 권고 (응답 26개)
10.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민주당부산시당 앞 릴레이 동조단식 (응답 26개)
11. 부산시교육청 외국국적 이주아동 교육비 지원 결정 (응답 23개)
12. 부산시 인권행정을 위한 첫 인권영향평가 실시 (응답 20개)
13. 부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심의·권고 활동 개시 (응답 15개)
14. 이주노동자들의 버팀목,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립 10주년 (응답 14개)

### Ⅲ. 기자회견문

####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위해 인권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수많은 희생을 딛고 ‘인권’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전 세계에 선포한 지 올해 74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2022년 한 해 동안 <부산지역 인권 5대 과제> 및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공약으로 보는 인권도시 부산의 미래는?’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부산의 인권행정체계 구축, 돌봄기본권 보장, 의료안전망 지원체계 점검 등을 진행하며 부산지역 인권현안을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의 5대 인권 뉴스를 선정하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2022 부산의 5대 인권 뉴스는 부산지역 48개 인권단체에 의견을 물은 후, 선정기준에 따라 분류해 14개의 뉴스를 취합하고, 다시 부산지역 인권활동가 100명에게 묻는 민주적 수렴 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인권 뉴스들이 있음에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인권 뉴스를 발표하는 일은 지역의 인권현장을 기억하고, 이후 인권운동의 실천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정한 5대 뉴스는 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국가폭력 인정 결정 ②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37년 만의 복직 ③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 ④ 부산시, ‘인권’ 명칭이 실종된 부서개편 ⑤ 인권단체 및 활동가 지원단체,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출범입니다. 이번 5대 인권 뉴스에서는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폭력 인정과 김진숙님의 복직과 같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오랜 숙제들이 좋은 맺음을 짓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권운동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이 출범했다는 밝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인권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침해’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회문제 또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일탈 사건을 바라볼 때, 분노하고 함께 아파하지만 정작 개개인의 인권을 기억하고 보호하기 위한, 나아가 제도개선을 위한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2022 부산의 5대 인권뉴스 선정을 통해 공감과 연대를 넘어 부산시민들과 함께 인권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은 공기와도 같아 박탈되거나 억압될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인권의 시작입니다. 어떤 차별이나 배제 없는,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위해 귀 기울이는 인권활동을 앞으로도 실천해나가겠습니다.

2022년 12월 7일 부산인권정책포럼

# 부산인권정책포럼

## I 취지와 목적

### □ ‘인권도시 부산의 정책적 토대구축’

- 인권현안 발굴
- 인권정책 연구
- 네트워크 구축
- 공동사업 추진

## II 경 과

### □ 2019년 12월 18일 발족 및 1차 포럼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개최

### □ 2020년 1월 6일 오거돈 부산시장께 드리는 의견서 발표

‘2020년 새해,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첫걸음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이다!’

### □ 2020년 1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 10명 선임
- 1~2기 운영위원 (가나다 순 / 2021년 12월 21일 제14차 운영위원회 연임 결정)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포럼 운영부위원장)
  - 박용민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
  -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 오다빈 사)노동인권연대 사무처장
  - 유선경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 이규희 사)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 정귀순 사)이주민과함께 이사 (포럼 운영위원장)
  - 정지숙 사)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
  -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정책실장 (포럼 간사)

### □ 2020년 5월 8일 제2차 포럼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개최

### □ 2차 포럼 참석자들 공동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 확보 의견서 전달

- 2020년 5월 21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및 박인영 시의회의장께 의견서 전달  
“평소에 할 수 없는 것은 재난 상황에도 할 수 없습니다!”  
— ‘재난 상황에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

- 2020년 8월 25일 3차 포럼 ‘차별없는 인권도시 부산만들기’ 한일포럼 개최
- 2020년 11월 4일 4차 포럼 ‘부산시 인권행정체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개최
- 2020년 12월 10일 5차 포럼 ‘2020,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개최
- 2021년 3월 16일 6차 포럼 ‘2021, 부산의 인권현안 10대 과제’ 개최
- 2021년 6월 23일 7차 포럼 ‘부산의 인권이슈1 —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현실’ 개최
- 2021년 9월 27일 8차 포럼 ‘위드(With) 코로나시대,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개최
- 2021년 12월 8일 9차 포럼 ‘2021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개최
  -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2021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 2022년 4월 20일 10차 포럼 ‘2022 부산의 인권 5대 과제’ 개최
- 2022년 5월 18일 각 정당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부산광역시 인권정책제안서’ 전달 및 박형준 후보와 정책간담회 개최
- 2022년 7월 20일 11차 포럼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공약으로 보는 인권도시 부산의 미래는?’ 개최
- 2022년 12월 7일 12차 포럼 ‘2022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개최
  -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2022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 Ⅲ 함께 하는 이들 (가나다 순 / 33개 기관 및 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 모임 부산울산지부, 녹산이주민의집, (사)문화복지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포럼,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회복지연대, 이주민문화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